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과 경험이

● 디자인 수준을 가늠한다

북디자이너 정계수 씨(32)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에게 북 디자인은 '놀이'와 다름없다. 가끔 넘어져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또 뭐 새로운 게 없나 고민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더 큰 즐거움을 위한 과정이다.

“처음부터 북디자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기업 CI를 만드는 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광고회사에도 한 3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세에 약한 편이거든요. 여러 사람들과 공동작업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구요.”

그녀가 보기에 광고디자인에서 디자인 능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정도였다. 나머지 50퍼센트는 그 결과물을 상사나 클라이언트에게 말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필요에 따라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해야 하는 게 현실이었다. 오히려 결과물보다 말이 더 인정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에 비해 혼자서 작업하고 디자인 의도를 전달하는 과정이 비교적 담백한 북디자인이 그녀의 성향에 맞았다. 북디자이너로서 그녀의 첫 직장은 문학동네였다. 판화가 이철수 씨의 전담디자이너로 입사한 그녀는 판화가 담긴 달력과 엽서를 제작하면서 북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다.

“입사하고 두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프랑스 여성작가의 소설을 번역한 《천진난만한 탕녀》라는 책의 표지디자인이 저에게 맡겨졌어요. 뭐랄까,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텍스트를 통해 제 자신이 느낀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군요.”

그녀에게 북디자인은 낯선 세계였지만 문학과 인문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문학동네는 자신의 회화적이고 일러스트적인 장점을 살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바다출판사를 거쳐 '나무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한 건 작년 6월이었다. 독립을 하고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조직에 속해 있을 때와는 또 보이는 게 달랐다. 디자이너 한 명 한 명이 모두 그녀의 경쟁자였고 서점에 깔린 모든 책들이 자신의 디자인과 비교대상이었다. 다른 디자이너와 차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무엇으로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모래알'이라는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길을 다니다거나 여행을 하면서 틈틈이 사진을 찍어두었다가 그것을 디자인에 사용했죠. CD에 담긴 이미지는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지만 제가 찍은 사진은 저만이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일러스트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다는 것도 그녀가 살릴 수 있는 장점이었다. 그녀가 좋은 텍스트에 욕심이 많은 것은 그만큼 텍스트를 충분히 반영하는 디자이너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모든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간혹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작품을 만날 때 여간 당혹스럽지 않다. 디자이너로서 미운자식이라고 적당히 해서 내보낼 순 없는 노릇이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텍스트를 끝까지 안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의 좋은 인상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디자이너가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스토리나 내용을 파악한다기보다, 그런 건 이미 알고 있죠. 그 질감을 느끼기 위한 거니까요.”

텍스트를 너무 잘 읽었는데도 아쉬움이 남는 작품으로는 김중광 씨의 소설 《경찰서여 안녕》이 있다. 이럴 땐 저자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특히 '경찰서여 안녕'이라는 타이포그래피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생각 같아서는 자신의 돈을 들여서라도 다시 책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다.

잡지가 읽는 잡지에서 보는 잡지로 바뀌었듯이 단행본에서도 시각적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그만큼 표지 디자인이 책의 판매에 미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가 좋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마케팅이겠죠. 디자인은 그 다음 정도 될까요.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디자인에 대한 평가나 논의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녀는 이두호 씨가 그린 《만화객주》(바다출판사)의 한 일간지 서평에서 자신의 디자인이 언급됐던 것을 잊지 못한다. 글 쓴 사람이 만화평론가이기는 했지만 서평에 디자인을 비중 있게 언급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재출간된 ‘객주’는 한국만화책 중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단단한 하드보드 양장에 단아한 표지 디자인은 책을 소유하고 싶게 만든다. 나는 이 책으로 하드보드 양장으로 된 우리나라 만화책을 가져보고 싶다는 소망을 풀었다. 그릇과 내용물이 조화를 이루어 잘 차려진 단아한 한정식과 같은 만화 ‘객주’. 만화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장 아름다운 책을 만들어준 바다출판사와 디자이너에게 박수를 보낸다.” (동아일보 2002년 4월 15일, ‘박인하의 만화세상’ 중에서)

개마고원에서 나온 《서얼단상》과 《자유의 무늬》를 작업했을 때 글을 쓴 고종석 씨의 반응은 ‘젊은 사람 생각이 참 특이하네’ 였다. 지금으로선 그 말이 칭찬인지 불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디자이너인 자신을 바짝 긴장시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행복한 디자이너’ 정계수 씨. 그녀의 꿈은 평생 북디자이너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출판저널> 5월호에 초대된 서기훈 씨도, 또 다른 선배들도 예순 살 일흔 살이 될 때까지 현역으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북디자이너의 생명이 그리 길지 않은 우리 출판계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녀의 꿈이 멋모르는 디자이너의 희망사항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옆에서 보기에 디자인이라는 작업이 툭툭 튀고 신선한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 나이까지 하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책은 유행에 민감하고 시대와 기술에 따라 급변하는 전자제품이 아니잖아요. 일본의 경우만 해도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북디자인을 하기도 해요. 오히려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과 오래 쌓은 경험이 가장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요.”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